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9. 5. 16.(목)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디지털소통팀	담당자	· 팀장 이상철, 사무관 장기봉, 주무관 원지선 · ☎(044)200-6053, 5020, 5025	
보도일시		2019년 5월 17일(금) 석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7.(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동해·독도 표기한 세계의 고지도 만나보세요

-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 ‘동해·독도 표기 고지도 디지털사진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24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5월 17일(금)부터 7월 16일(화)까지 두 달간 ‘동해·독도 표기 고지도 디지털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디지털사진전은 17세기 이후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기록한 세계 각국의 자료를 국민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국립해양박물관(관장 주강현)이 소장하고 있는 8개 국가의 고지도 103점*이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전시된다.

* 서양권(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70점, 동양권(한국, 일본) 33점

전용 누리집은 ‘www.독도사진전.com’이며, 6월 16일까지 방문한 분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사진전 소문내기, 방명록 댓글달기 등)도 진행한다.

* 해양수산부 누리소통집(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도 접속가능

이상철 해양수산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세계의 고지도를 보면 동해 바다를 동해(Oriental Sea)나 한국해(Sea of Korea)로 표기한 경우가 많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동해’라는 지명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해양영토에 대한 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동해 · 독도 표기 고지도 디지털사진전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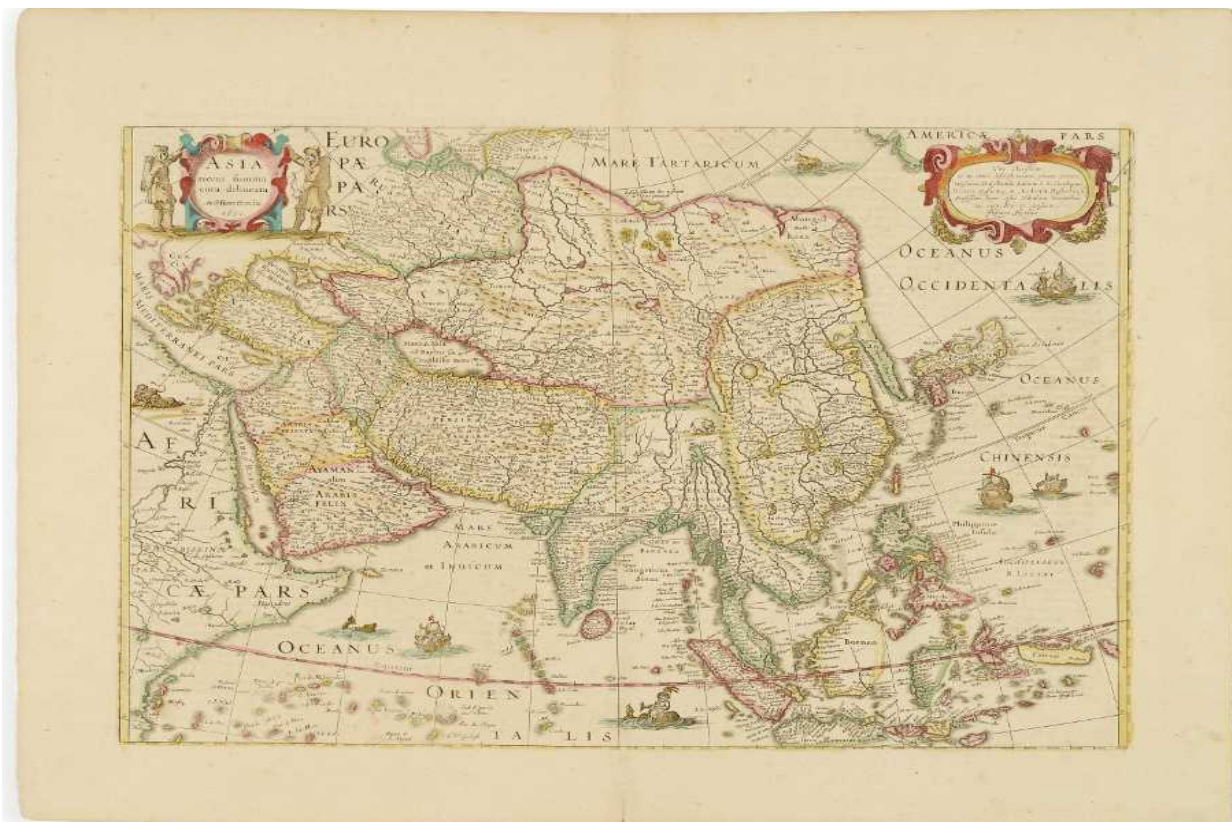
- 일시/주소: 5.17(금)~7.16(화) / www.독도사진전.com
- 주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 주제: 세계속의 우리 영토 동해 · 독도
- 전시품목 : 전 세계 8개 국가 고지도 총 103점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디지털 사진전 누리집 세부 이미지



「훈디우스와 안손의 아시아 지도」 (1631년) 원본 이미지



「훈디우스와 안손의 아시아 지도」(1631년) 세부 이미지



「안토니오 자타의 세계지도」(1779년) 원본 이미지



「안토니오 자타의 세계지도」 (1779년) 세부 이미지